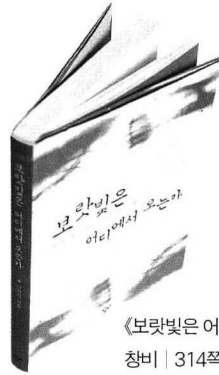


시론집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낸 시인 나.희.덕.

상처와 분열을 넘어서고 싶은 ‘보라색분자’의 꿈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희덕 지음 |
참비 | 314쪽 | 값 85,000원

나희덕(38) 시인은 최근 두 종류의 구두에 대한 관념을 키워왔다.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가 출간되기 전 저자인 나희덕 씨가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낡은 구두와 <낡은 구두>’였다. 앞에 나온 ‘낡은 구두’는 실제로 문익환 선생이 생전에 신던 신발을 말한다. 나씨가 문익환 목사의 영안실에서 본 이 구두에는 역사적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존엄성, 즉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시인의 고민과 반성이 담겨 있다. 두 번째 ‘<낡은 구두>’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제목이다. 시인은 <낡은 구두>를 두고 하이데거 M. Heidegger와 미술사학자 샤피로 M. Schapiro 그리고 자크 데리다 J. Derrida가 펼친 논쟁을 소개하며 다양한 해석을 낳는 미학적 존재로서 작품의 숙명을 이야기한다.

나희덕 시인이 ‘낡은 구두와 <낡은 구두>’를 제목으로 삼고 싶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고민이 바로 1990년대를 무사히 건너 지금까지 시를 쓸 수 있게 한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시를 쓰기 시작해 1990년대에 첫 시집을 냈어요.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있는 셈이죠. 덕분에 저보다 앞선 선배 시인들에 비해 역사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동시에 새롭게 제기된 미학에 대해선 거부감이 덜했죠. 저뿐만 아니라 박형준 시인, 장석남 시인 등 제 세대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거예요.”

사회주의 이상이 허물어진 1990년대 초반은 다른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선배들이 젊은 날 그랬듯 그녀 역시 1990년대는 본격적으로 살아내야 할 젊은 날이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두 고민은 서로 섞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냈다. 이 책 제목에 사용되기도 한 ‘보랏빛’이다. 그녀에게 ‘빨강의 뜨거움과 파랑의 차가움이 늘 갈등’하는 보랏빛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중요한 암시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나아가 ‘탄생과 죽음, 현실과 이상,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여성성과 남성성, 감정과 이성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주변에서 저를 ‘보라색분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회색분자의 미화된 표현인 셈이죠. 단지 저는 옹고 그르다는 단선적인 태도보다는 대상에 접근하는 데 다양한 맥락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제가 보라빛을 이야기하지만 보라빛만 해도 한 가지 색이 아니잖아요. 라일락꽃과 등꽃과 도라지꽃과 붓꽃의 보라가 각기 다르듯 그 안에는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색이 있습니다. 문학에서 역시 현실의 논리 뿐 아니라 다양한 미학적 접근을 통해 여러 층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나씨는 보라색을 ‘상처를 넘어서는 치유력과 더불어 분열을 넘어서려는 역동성을 지닌 색’이라고 분석한다. 남들은 잘 알아주지 않지만 그녀의 시도 이러한 치유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녀는 ‘은밀하게 키워내면서 단단해졌을 때 완곡하게 드러내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제 시가 ‘정적이다, 모성적이다’라는 평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정적이라고 말할 때 그 과정에 겪었을 갈등에 대해선 주목하지 않아요. 저 역시 내적으로 항상 갈등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균형’인 셈이죠. 모성성의 경우도 모성성이 제 덕목이기는 하지만 모성성 그 자체를 탐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힘겨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실존적인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녀의 30대는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믿었던 대상이 무너지면서 내면적인 위기를 겪은 시기가 30대 초반이었다면, 30대 중반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이 시기, 시인은 시를 쓰며 시인의 삶을 유지하는 한편, 방송원고를 써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야말로 ‘생존의 불안과 위협 속에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이중생활’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살아 있다는 것을 훨씬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다. 세상에 대한 대결의식도 그 어떤 때보다 강했다.

“나름대로 시론을 가지고 있는 시인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저에게 시는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삶의 지점 지점을 살아내고, 그 지점들이 이어져 작은 길 하나 내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문학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시적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시인으로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씨에게 시를 쓰게 했던 것은 바로 그녀 앞에 놓인 삶이었다. 30대 내내 끊임없이 고비가 다가왔지만 그 고비를 넘으면 뭔가 새로운 게 보였고, 그래서 안도할 수 있었다. 나씨는 이제 30대 후반은 자기 치유의 시기라고 말한다. 2년 전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로 부임해 광주로 이사하면서 그나마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의 혼란스러움 때문인지 그녀는 사람과 일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한다.

“집이 무등산 아래에 있는 증심사 입구에 있어요. 답답할 때 친구를 찾기

보다 산에 오르곤 하죠. 요즘은 어머니처럼 저를 품어주는 산이 위안이 돼요. 가끔 정말 울고 싶을 때는 산 아래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음악을 크게 따라 불러요.(…) 처음 광주에 이사했을 때 적응하려면 1년간은 시를 못 쓰겠구나 걱정했는데, 여기 와서 낯선 것도 창작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보라빛...》은 산문집이라기보다 시론집에 가깝다. 등단한 지 벌써 15년이 된 나 시인으로서는 그동안 자신을 형성한 게 무엇인지 정리했으면 싶었다. 2부 주제론과 3부의 작가론이 나씨의 말대로 ‘편애의 기록’인 것은 그 때문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글을 쓰고 싶다가보다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인으로서 시만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게 사실이죠. 다만 스스로에게 시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작업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농담삼아 ‘다시는 이런 글 안 쓰기 위해 책을 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청탁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네 번째 시집 《어두워진다는 것》이 2001년에 나왔으니 이제 다섯 번째 시집이 나올 때가 됐다. 이미 원고량은 충분하다. 다만 그녀는 속도를 늦추면서 가야 태작이 적은 시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은밀하게 키워내면서 단단해졌을 때 완곡하게 드러내는’ 그녀만의 방법론이다. **김민**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나름대로 시론을 가지고 있는 시인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저에게 시는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삶의 지점 지점을 살아내고, 그 지점들이 이어져 작은 길 하나 내는 거죠.”